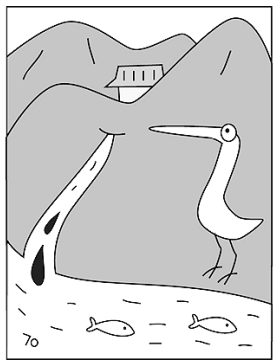




청정환경 사찰이 먼저 지켜야

오늘날 한국불교는 어느 종교나 단 체보다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 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 은 가르침과 생활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생활 활동의 부산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중의 대표적인 문제가 사찰내에서 발생하는 사람오수와 쓰레기, 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문제다. 원칙적으로 사찰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은 그것이 사찰내의 스님이나, 종무원, 그리고 신도 등 사부대중에 의한 오염이건, 아니면, 탐방객에 의한 오염이건 간에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의 주체는 당연히 사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내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염방지 및 처리시설 의무화 환경인식 제고·상시관리 필요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종의 하나가 사찰내에서 발생하는 사람오수의 적절한 처리와 관리문제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산중에 위치한 사찰은 청정지역이거나,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아직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부 등과의 협의에 의하여 사람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리하여 국립공원지역과 국립공원 등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수처리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산중사찰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오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근 계곡으로 방류하고 있다.

그러하여 인근계곡의 유량이 많지 않거나, 갈수기인 경우에는 계곡을 오염시키게 됨으로써 청정해야 할 사찰지역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사찰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사찰내 오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찰지역의 특성에 관한 오수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람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하러

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하러

사람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을 때도 있다. 결국 적절한 처리시설의 설치와 상시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찰 또한 오염물을 배출시키는 오염원이라는 인식하에 사찰내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와 함께, 처리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적절한 상시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찰이 주변 계곡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병인(국립묘지관리소 환경교육과 교수)

멸빈제도 폐지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종회의원 면책 조항도

승가 사회에서 일종의 사형제 도인 '멸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는 멸빈제도를 폐지하고, 제자를 복적이 불가능한 '무기제작'과 10년후 복적 신청이 가능한 '유기제작'으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최근의 사회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열린 선우도량에서 멸빈제도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하게 하는 율장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과도 연관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이 되면 종헌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

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호법분과위는 또 중앙종회 등의 없이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며, 종헌 개정 투표를 공개하는 등의 입법도 추진한다.

호법분과위는 종헌 제3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독립된 사법부가 입법기구 구성원이라고 중앙종회 등의 없이 징계판결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기에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종헌 개정과 같이 종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경우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공개돼야 책임 정치,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도 중

헌 개정을 결정하는 종헌 130조 3항 삭제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단 인사에 관한 인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종헌 제99조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재산범죄나 항명죄의 경우 범죄자를 직위에 유지시키면 범죄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초심호재'의 결정으로 임정기간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법분과위는 이 외에도 집행유예제도, 선고유예제도, 단기자유형제도, 선택형제도, 사건배당제도, 간이심판제도, 민사심판제도, 재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호법부장 임명동의 등 '통과'

조계종 제164회 임시총회

조계종 호법부장 진원 스님(부안 내소사 주지) 임명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재심호재위원회에 정념 스님(평창 월정사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4회 임시중앙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중앙총회는 또 법안·해국·무관·미산·지현·지안·지육·성진·지형 스님을 고시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했으며, 청우·선광·원소·해자·철웅·성호 스님을 소청심사위원으로, 도공·범해·범여·적광 스님을 중앙선거

관리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중앙총회는 이 외에도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후보로 일민 스님 후임에 성철·성운 스님을, 범여 스님 후임에 범여·상운 스님을, 박도근 씨 후임에 박도근·이홍섭 씨를 각각 추천하는데 동의했으며, 불기2547년도 중앙총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제164회 임시중앙총회는 중앙종회의원스님 25명과 집행부 8명이 포함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하루만에 폐회했다. 한편 종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88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동우 기자

위기의 사찰학생회... 눈높이 프로 절실

지도교사 간담회 개최

파라미타청소년연회(회장 원택)가 사찰 학생회 현황 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해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사찰학생회 지도자들은 영어, 다도 등 문화포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찰학생회 지도자들은 예년에 비해 학생회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흥미롭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으며, 부처님오신날, 여름수련회, 가을 체육대회 등 학생회별 연중행사도 과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유철주 기자

'문화재청 지방청 설치 연구중'

유흥준 청장 법장스님 예방해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9월 13일 국보 84호 서산 마애삼존불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 "보존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보존각이 통풍을 가로막아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장 스님은 유흥준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성보박물관 건립비뿐 아니라 운영비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청장은 "성보박물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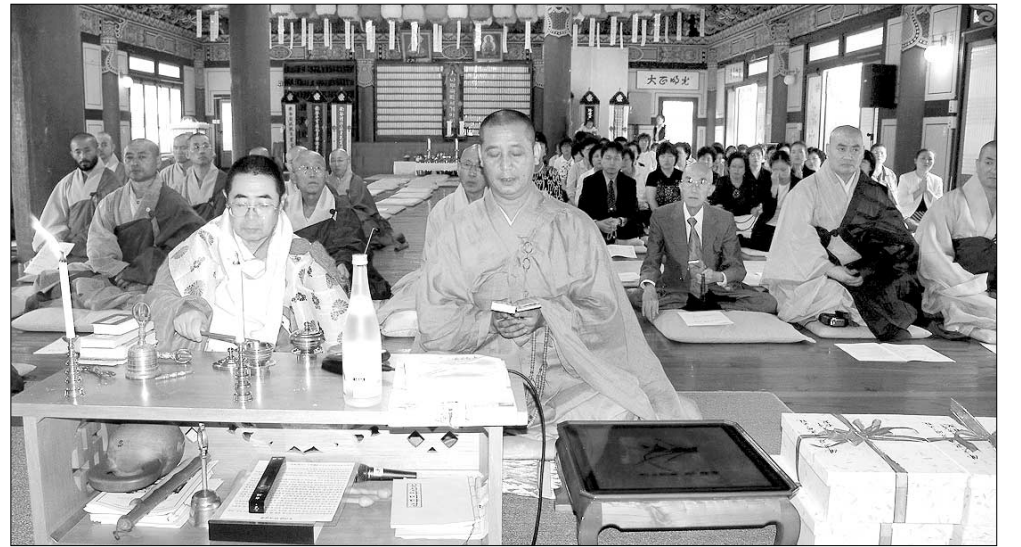
한편 유 청장은 "문화재청장에 취임 해 보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문화재청 산하에 지방청이 없는 것"이라며 "지방청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문화재 관리는 어렵다. 3곳의 지방연구소는 지방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제 앞서 유 청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소장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문화재 종합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종무원법 개정청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를 비롯 불교계 8개 단체가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 '직위의 해제'와 '일반직 종무원 임용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종무원법 개정을 청원했다.

단체들은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자에 대해 현행 종무원법에서는 어떠한 관련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국가공무원법' 이상의 관련 규정이 마련·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9월 1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임진왜란 희생자 영령위한 한·일합동위령제에서 일본 고안 연희사 태청 허가사(앞줄 왼쪽)스님의 집전으로 진혼기원법요식이 진행되고 있다.

400년전 원혼들이여! 극락왕생 하소서

봉선사서 한·일 합동 임란위령제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한·일 합동위령제가 9월 17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에서 봉행됐다. 봉선사와 일본 연희사(태청 허가사)가, 전국 일곱 순례회 세화연(대표 이리에 고우이치

로)가 공동으로 주최한 위령제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오늘 위령제를 통해 400여년전의 원혼을 모두 청산하고 한·일 양국의 긴밀한 교류와 발전을 이끌어내자"고 법문했다.

이리에 고우이치로우 대표 인터뷰 14면 봉선사=김은경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m.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다양도라산 광덕사선원 산사음악회와 단풍문화축제

산사음악회 (10월 9일 오후 5시)

- 장소: 광덕사선원 특설무대
- 1부 - 프롤로그
 - 법고 (전공스님 - 전국 법고대회 대상 수상)
 - 삼귀의
 - 반야심경
 - 축사 (혜인 큰스님)
 - 축사 (데이빗 테일러 Taylor David - 현, 주한 뉴질랜드 대사)
 - 인사말 (무허 큰스님)
 - 축가 (석가사 합창단 - 어디로 가야하나, 향을 사귀 뭉을 태워, 일천장에 비치는 달)
- 2부 - 산사음악회
 - 사회: 진명스님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
 - 1. 타악연주: 국립국악원, 숭례사물놀이 협연
 - 2. 오프닝 팡파르: 대구 팡소오케스트라
 - 3. 김난영 - 살랑살랑, 가인, 이룰 수 없는 사랑 외
 - 4. 심진 스님 - 무상초, 물리물라, 매망
 - 5. 이인철(바리톤) - 그리운 마음, 투우사의 노래, 린다박(소프라노) - 그리운 금강산, 오미오밤비노가레, 경북대학교 합창단(보리스 외)
 - 6. 강산에 - 라구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험한 언덕처럼 외 2곡
 - 7. 색소폰 솔로: 김영찬 교수 - 칠갑산
 - 8. 성악듀엣 - 사랑을 위하여
 - 9. 설운도 - 누이, 갈매기 사랑 외
 - 10. 엔딩 연주: 대구 팡소오케스트라

단풍문화축제 (10월 9일 오후 2시 ~ 8시)

- 장소: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경내 전시장
- 1. 초대 도자기전시회 - 서동규 (당곡도요 대표)
- 2. 초대 전시회 - '연꽃 만나러 가는 날' - 최성환 (전일화가)
- 3. 시에 시연 타묵(打墨) 퍼포먼스
 - 울산 리홍재 (울림서도원 원장)
 - 서예시연: 오후 4시 ~ 4시 30분
- 4. 도자기 전시와 체험마당
 - 방곡 도예촌
 - 단양 지역의 도자기 작품 전시 및 도예 체험 마당
- 5. 향지공예 전시와 체험마당
 - 정순현 (한국미술협회 운영위원, 정순현 한지공예연구원)
- 6. 불교꽃꽂이 전시와 풍성 불이 체험마당
 - 박필상 (일송 불교꽃꽂이 연구소장)
- 7. 다도시연과 시흥 학마당
 - 한국총익茶文化연구원
 - 다도시연: 오후 3시 30분 ~ 4시

광덕사선원 오시는 길

개별 출발

- 버스 - 동서울 → 단양(고속버스 1일 12회)
 - 강남터미널 → 제천(고속버스 25회) → 단양
 - 대전 → 청주 → 단양(직행버스 1일 25회)
 - 안동 → 영주 → 단양(직행버스 1일 44회)
- 기차 - 서울 청량리역 → 단양역(1일 세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통일호 1회) ☎1544-7788
- ※ 단양 → 단양의시버스터미널에서 대강원 버스 승차(30분 간격 운행) → 대강원에서 택시 이용(약 10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 선원 극락보전
- 승용차 - 서울 출발: 영동고속도로 → 남원주IC(만경JC) → 중앙고속도로 → 단양 → 단양방면(우회전) → 예천 - 사인암 방면(좌회전) → 사인암 방면(우회도로) → 광덕사 표지판(좌회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 선원 극락보전
- 대구·부산 출발: 경부고속도로 → 서대구(교호JC) → 중앙고속도로 → 단양 → 단양방면(우회전) → 예천 - 사인암 방면(좌회전) → 사인암 방면(우회도로) → 광덕사 표지판(좌회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 선원 극락보전

단체 출발

- 서울출발 - 석가사 일각스님 ☎(02)354-1141, 011-9960-7978
- 대구출발 - 금강문 김만삼 ☎(053)651-6523, 011-817-7752

행사 당일 셔틀버스 운영

단양 고속버스터미널 → 단양역(경유) → 대강원 대강우체국 건너편(경유) → 광덕사 선원

[정오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

※ 행사당일은 상영회 후원으로 산사음악회 시작 1시간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대비해 방한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주최·주관 광덕사선원 ● 후원 단양군청, 불교TV,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불타사, 석가사, 붓다의 호흡 금강문 ● 열찬 대성기회, 애조음, 방곡도요, 방곡도예촌, 갤러리 미루너, 울림서도원, 정순현한지연구원, 일송 불교꽃꽂이 연구소, 한국총익茶文化연구원, (사)숭대대 사물놀이 예술단 ● 문의 광덕사선원 ☎043-421-7000, 421-6900, 011-9960-7978 www.ibmtemple.org (한글주소: 광덕사선원)